


#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주식회사 화신

취재 | 임재근 기자

## 안전보건 경영 실천으로 무한 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것

1969년에 설립된 화신산업사를 모태로 1975년 창설한 화신은 자동차 Chassis 및 Body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업계의 선도자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이어왔으며, 최고의 품질을 위한 기술력과 첨단 설비 및 우수한 인력,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경영방침으로 21세기 세계 일류 기업의 표본이 되기 위한 부단한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화신은 자동차의 내구성, 주행성 및 고효율 연비에 가장 긴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부품 양산을 위해 소재의 경량화와 다양화 및 부품의 최적 설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완성차 양산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1987년에 설립된 연구소의 기능을 대



폭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화신은 인간 본위의 경영,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경영의 기치 아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고객에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일원으로서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작업장 건설을 통해 동종업계의 모범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생각을 바르게 실천한다는 좌우명으로 무한 경쟁시대를 헤쳐나갈 것이다.

### 중량물 이송에 따른 불가피한 지게차 사용

무거운 자동차 Chassis 및 Body부품생산으로 이동과 상차 작업을 위해서는 지게차 사용이 불가피하다. 지게차의 사용은 많은 위험요소를 낳고 위험요소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작업 현장 내에는 돔 반사경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작업통로와 지게차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지게차 부분의 안전교육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규정된 이동속도와 지게차 이용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반교육은 물론 지게차의 기계 원리 이해를 돕고 안전작업을 위해 2005년, 지게차 운전자 자격취득(면허) 교육을 전 지게차 운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 후로 지금까지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 위험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과 사고예방

프레스와 용접, 산업용 로봇의 사용이 빈번한 금속가공업의 특성 상 위험기계·기구로 인한 위험이 높다. 최고 2,000톤의 프레스 사용으로 한 순간의 방심은 바로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산업용 로봇의 오동작 또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잠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프레스의 경우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작업 중 근로자가 프레스에 접근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하지만 금형의 교체나 준비 작업 시 근로자가 직접 프레스를 조작하게 될 때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의 철저한 교육과 감시를 통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약 420여대의 산업용 로봇은 작업 생산 효율의 증대와 편리를 제공하지만 설비의 오작동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기계점검과 근로자의 로딩작업을 제거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막는 밀폐식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근로자 안전에  
최선을 다할 터..



#### - 안전만 노조사무국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노·사의 구별이 없으며,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작업의 특성상 위험기계의 사용이 많고 그 종류도 다양하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으로 맺어지는 인연,  
사람과 사람

#### - 최운복 대리

사내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 일 해온지 어느덧 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몰라 사람이 어렵더니, 시간이 흘러 동료들이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나의 동료와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로  
발생한 손실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 - 서동화 대리

회사에서 조그마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면 본인과 기업에 미치는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작업 중지 및 사기저하, 기업 이미지 손실 등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제적 손실을 떠나서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을 비롯한 동료, 친구 등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경제 이론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로딩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작업 시작 전 지적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스트레칭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중량물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이 많고 서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오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작업 공정 중 중량물 들기 작업에는 각종 리프트와 호이스트의 설치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작업 시작 전, 후에 작업 성격에 맞는 스트레칭 체조를 실시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 스트레칭 개발을 위해 작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근로자 중 19명의 사내 스트레칭 강사를 양성하고 양성된 강사는 2개조로 나누어 현재 근로자의 스트레칭 체조를 돕고 있다.

### 무재해 사업장 건설을 위한 꾸준한 전진

무재해 3배수를 달성 중인 화신은 작업장 안전관리는 기본, 근로자 개인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개인 병력관리는 물론 평균 근속년수가 15년에 달하는 장기근속 근로자를 위해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암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다. 또한 금연클리닉 교실을 통하여 참가한 근로자의 50%가 금연에 성공하는 등 보건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펴나가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건강 확보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화신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 Interview

주식회사 화신 박선구 대표이사

기업의 기본, 이익추구에 앞서 안전한 작업장 건설이 되어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어 각 기업들은 품질 우선주의에서 안전이 전제된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저희 화신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추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에 앞서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원이 우리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자산을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누구나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